# 대 · 중소기업 기술협력으로 디지털전자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자원부, 삼성전자 디지털전자산업분야에 4450억원 투입**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4일 반도체장비 벤처기업인 아토의 시흥시 본사에서 제1회 중기특위 기술지원분과 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조환익 산자부 차관 주재로 삼성전자, 아토, 전자부품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중기특위 위원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날의 분과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산업자원부가 29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조환익 차관은 디지털산업의 수입재 중간투입률(38.7%)이 전체산업(평균 13.1%)의 3배 수준인 점을 지적하면서 대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 간의 '공동기술협력'을 통한 전자부품의 '국산화' 노력과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그동안 끊임없이 반도체업계가 요청한 '평가라인 구축' 건에 대해서도 향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평가라인 구축'은 중소 · 벤처기업이 만든 반도체공정장비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국 내 디 지 털 전 자 산 업 의 현 주 소**

이날 회의는 우선 국내 디지털전자산업의 기술수준 현황과 다양한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시작됐다. 디지털전자산업은 2004년도 전체수출 2539억원의 38.1%인 967억불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효자 수출 분야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반도체 생산국이며 메모리분야는 세계 1위, LCD는 한국, 대만, 일본이 각축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세계 강대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은 전문기술인력 부족, 설비의 신뢰성 평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술개발 수준은 선진국 대비 8~9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낙후와 전문기술인력 부족현상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 · 벤처기업들에 적극적인 협력과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삼성전자 남상권 전무는 디지털전자산업분야의 기술협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부품 및 설비 국산화 등에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 · 벤처기업과 30여 건의 공동기술개발 추진, 협력회사와의 설비투자 확대, 핵심부품 및 설비의 국산

**대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이 서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윈윈(win-win)의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열악한 자본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없는 중소 · 벤처기업과 핵심 기술 부족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대기업이 지난 5월 4일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자원부와 삼성전자, 아토,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참석한 '제1회 중기특위 기술지원분과 위원회' 가 열린 회의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 간의 상생의 희망을 찾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설비에 필요한 테스트용 웨이퍼 무상 지원 등을 약속했다.

### 중소 · 벤처기업 발목 잡는 시급한 문제들 논의

이어 중소 · 벤처기업을 대표한 아토 문상영 대표의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협력 현황과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아토는 삼성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HT-SiN막 형성장비를 개발, 모범적인 대, 중소 · 벤처기업 기술협력 사례를 창출한 회사이다. 문대표는 이번 대, 중소 · 벤처기업 기술협력을 성사시키기까지 느낀 경영상의 애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건의했다. 그 첫째는, 신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시 물적담보 우선의 금융시스템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한계. 둘째, 우수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셋째, 중소기업 주도형 국책과제 발굴 및 지원 강화. 넷째, 중소기업 지원정책 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세분화하고 단계에 따라 정부지원정책을 적용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전자부품연구원의 김춘호 원장은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중소 · 벤처기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금년부터 마케팅, 기술인력, 자금 등을 중소 · 벤처기업 맞춤형 패키지로 서비스하겠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 중소 ·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조환익 차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기업,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소 · 벤처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장비를 대기업이 양산체제로 들어가기 전에 평가를 하는 라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를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 타당성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전자 주요부품소재의 국산화 등을 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 이치전지, 휴대폰 등의 분야에 자금을 투자하고 현장인력교육 사업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아토에서 열린 회의는 중소 ·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아무쪼록 비전 있는 중소 · 벤처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편 산자부는 앞으로 전자 · IT, 자동차, 6대생산기반 업종, 기계 업종에 대해서도 기술지원분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